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붙어 있으라

바이러스 한 놈이 우리를 괴롭히는 데다 하루하루 참 덥습니다. 이 더위에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간에도 더위를 날려 줄 시원한 음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에겐 빵 몇 개로 무수히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던 그 체험은 강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단순한 배부름이 아니라 그 배불리 먹음의 강렬한 표징을 바라보길 요청합니다. 예수님 주변의 그 많던 사람들이 본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저 배불리 먹은 것과 배불리 먹음의 표징,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목격했던 것에 따라 움직여졌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은 것에 대한 대단함을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속해서 배부를 수 있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고, 당신 옆에 붙어 있으라 하십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이유라구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본당의 미사 전례 때 예전과 비교하면 빈자리가 꽤나 있습니다. 여느 본당이나 비슷하겠지만 우리 본당 신자분들은 항상 앉는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빈자리는 예전의 주인(?)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성당에 오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안타깝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빈자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현 상황이 심할 때나 조금은 나아졌을 때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그래 왔듯이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미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무엇을 보고 오신 것일까? 그리고 계속 오시는 걸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고 와 계신 거죠? 이 미사 안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믿기에,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려구요? 예수님은 그것이 '맞다'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본 것이 맞습니다.

덥지만, 짜증 나게 덥지만, 그분 옆에 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진우 아우구스티노 **신부** | 북신동본당 주임

주일 전례

제 1 독 서	탈출 16,2-4.12-15
화 답 송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제 2 독 서	에페 4,17.20-24
복 음	요한 6,24-35

주일 전례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홍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하느님께 충성忠誠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우리나라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사명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은 입대하여 제대하는 날까지 귀가 따갑도록 이 말을 가장 많이 외치며 듣고 살아간다.

충성忠誠의 사전적 의미는 '참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특히 국가나 임금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이다. 한자의 뜻도 그러하다.

충성 '충忠'은 마음 '심心'자 위에 가운데 '중中'자가 놓여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무게중심을 잡는다는 '중中'은 얼굴의 이목구비耳目口鼻를 통해 드러난 마음 '심心'과 합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마음 '심心'자 위에 가운데 '중中'이 두 개가 되면 뭐가 되는가? 근심 '환患'자가 된다. 중심이 두 개이다 보니 목표도 두 곳으로 나뉜다. 그러므로 '환患'은 '충'과는 달리 마음이 두 갈래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갈라져 갈등葛藤을 겪고, 근심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이쪽저쪽 양다리를 걸치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꼴이다.

또 '성誠'은 말씀 '언言'변에 이룰 '성成'자로 되어 있다. 그것은 말을 이룬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말한 것을 책임지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빈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바른말을 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언행일치言行一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항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무게중심이 잡혀 '충성忠誠'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갈라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자患者'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다.

신앙인은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선포된 하느님 말씀에 반대되는 세속주의적인 생활방식을 복음 정신으로 바로잡아 살고 있다. 또 세상의 그 어떤 대상보다도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하느님께 충성하는 삶이다. 군인들이 국가에 충성하면서 군 생활하듯이, 신앙인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최고의 충성을 바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인간이기에 가족을 돌보고 세상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느님께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을 하는 것과 하느님을 섬기는 일 사이에서 우선순위優先順位의 갈등葛藤을 겪기도 한다. 때로는 세상 것을 중요시하여 하느님을 덜 사랑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충忠'의 상태가 아니고 '환患'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방황도 하고 냉담冷淡 생활도 한다. 이럴 때는 빨리 '환'에서 '충'의 상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며, 세례 받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하느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십계명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고 하고, 복음에서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마르 12,30 참조) 하는 것도 하느님께 충성하라는 것이지 않은가?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는 국가에 충성해야 하고, 신앙인으로서는 하느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

대구대교구장 마산교구청 신축공사 현장 방문





대구대교구장(조환길 타대오 주교)과 보좌 주교님(장신호 요한 보스코)이 7월 15일 마산교구청 신축부지를 방문하셨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님의 환대를 받으며, 신축 경과 보고를 듣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조환길 대주교님은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구청 신축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셨다.

지난 6월 19일 기공식 이후 각 본당에서 신축기금 모금을 하고 있으며, 다른 교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축기금을 보내주고 있다. 6월 29일에는 서울대교구장(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께서 교구청 신축을 위한 기부금을 보내주셨다. 도움 주실 분은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055·249·7121)나 본당 사무실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훈 신부, 창원시 사회복지사 대상 수상



사진 출처: 창원시 홈페이지



최훈 타대오 신부(사회복지국장)는 7월 14일 창원 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된 “제9회 창원시 사회복지사 대회”에서 ‘창원시 사회복지사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행사는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다. 최훈 신부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2학년도 신학교 지원자 피정

2022학년도 신학교 지원자 피정이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었다. 피정은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요한 4,10)이라는 주제로 교구 성소국(국장: 최문성 마르코 신부)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피정에서는 계강준(요한) 부제와 신승혁(요한) 부제의 강의를 통해 ‘신학생으로서의 삶’과 ‘부르심과 응답의 삶’에 대해 나누며, 지원자들의 성소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현재 박희용(야고보, 명서동본당), 서유찬(라파엘, 고성본당) 지원자가 준비하고 있다.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여정

성경 인물에게 배우는 나이 듦의 영성

젊은이에게도 희망이 되는 나를 찾는 행복한 여정

이 책은 태어남과 마찬가지로 나이 듦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다. 저자는 '참 나'의 얼굴로 사는 복된 노년의 길을 구약과 신약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소개한다. 이 책은 나이 듦을 생각하는 세대에는 위로와 용기를 건네고,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전한다.

우리는 젊고 멋진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몸에 그려지는 세월의 나이테를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기에 이 책은 늙음을 피하지 않고 기쁘게 맞아들이는 지혜를 이야기한다. "어떻게 하면 '참 나'의 얼굴을 가꾸고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실마리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의 삶에서 찾고 풀어간다. 이 책은 떠남의 신비, 고독의 풍요, 기다림 너머에는, 그리고 아, 비로소 자유로움이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서명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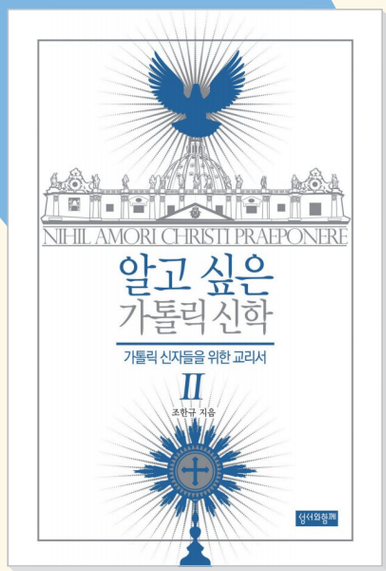
이야기식으로 쉽게 풀어 쓴 모든 신앙인을 위한 가톨릭 신학 입문서

알고 싶은 가톨릭 신학 II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두십시오."(1베드 3,15)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와 마리아의 관계, 교회의 성사성과 같은 주제는 신앙심을 자부하는 이들에게조차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고유한 주제에 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신자 대부분은 가톨릭 신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뿐더러, 설령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신학 개념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알고 싶은 가톨릭 신학』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톨릭 신학과 교리를 쉽고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1권에 이어 제2권에서는 성령, 성모 마리아, 교회, 그리고 성사론과 7성사에 관해 다룬다. '성령의 활동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가톨릭교회가 왜 마리아를 공경하는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등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다. 총 60가지 신학 주제에 관한 저자의 쉬운 해설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쌓아온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 안에 우리 신앙에 관한 답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출판: 성서와함께
- 지은이: 조한규 신부

어찌 믿지 않을 수가

김정권 시몬 수필가/ 가톨릭 문인회

길을 가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지난다. 사무실 유리창에는 매매를 원하는 물건들의 상세정보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역병으로 사람들의 모임이 제한되면서 경기가 안 좋으니 그 물건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별로 관심 두지 않아도 집을 나서면 신작로까지에는 서너 군데의 중개사 사무실이 눈에 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중 한 곳에는 빼곡히 붙어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중개사 사무실 자체를 임대한다는 전단 한 장만 달랑 붙어있었다.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이 주업인데 자기 사무실을 세놓는다는 게 뭔가 짠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식당 직원들에게 1,8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팁을 선물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뉴햄프셔주의 한 음식점에서 어떤 손님이 팁으로 16,000달러를 내놓은 것이다. 핫도그와 음료수 등 37.93달러(약 4만 원)어치의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의 약 420배가 넘는 팁을 주었다. 당시 거액의 팁을 보고 놀란 직원은 “세상에, 진심이세요?”라고 손님에게 되물었다고 한다. 이에 손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가진 게 있어야 베풀기는 하겠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쉽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에도 미담이 많고, 연말이면 해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얼굴 없는 천사 등 어려울 때 소리 소문 없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들이 베풀 때면 천원 권 지폐와 동전까지 포함된 것을 보아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 문득 故 김동한 신부님이 생각난다. 대구에서 밀알결핵요양원을 운영하셨던 신부님은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쌀독 바닥이 드러나면 제단 앞에서 하느님께 기도드렸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쌀가마니나 돈을 두고 간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쌀 떨어진 날 아침 일찍 미국에서 우편으로 돈이 부쳐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믿는다. 저렇게 송두리째 털면서 해마다 그 선행을 반복하는 걸 보면 하느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계속 채워주면서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손길을 뻗으심이 눈에 보이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그렇게 들어도 남몰래 내일뿐만 아니라 그 훨씬 뒷날까지도 걱정하는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하느님은 세상을 어렵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 중의 하나이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안녕하십니까?’라고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독특한 인사법에서 한국만의 매력에 빠져든다고 한다. 남을 배려하기 위한 십시일반의 상부상조문화는 정말 자랑할 만 한 유산이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손짓하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으실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깨닫는다.



기억할 선종 사제

장병화(요셉) 주교
1990년 8월 3일



기억할 선종 사제

박주선(안토니오) 신부
1995년 8월 3일

교구/본당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숙박없이 2일간 진행합니다.
일시: 8월 14일(토) 10:00~20:00
8월 15일(주일) 09:00~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통독범위: 루카복음
대상: 선착순 20명 마감
참가비: 5만 원
신청: 8월 8일(주일)까지
문의: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추후 안내)

47차 탈출기 연수

탈출기 성경그룹공부를 이수한 청년을 대상으로 노트검사 및 연수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관련 대응 지침에 따라 첫째날, 둘째날은 '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셋째날, 넷째날은 숙박하지 않고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8월 19일(목), 8월 20일(금)
19:40~22:00 비대면('ZOOM')
8월 21일(토) 10:00~21:00
마산가톨릭교육관
8월 22일(주일) 10:00~16:00
마산가톨릭교육관
강사: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대상: 창세기 연수 이수 및 탈출기 성경그룹 공부를 수행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
참가비: 4만 원
문의: 010·2961·9918(최수미 루피나),
010·6245·4967(임기호 보니파시오)
▶파견미사: 8월 22일(주일) 15:00

교리교사 하계피정

일시: 8월 22일(주일) 09:30~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주제: 하느님 안에서의 쉼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시편 8,5)
신청: 8월 15일(주일)까지
(선착순 70명으로 제한)
피정비: 2만 원
준비물: 마스크, 개인컵, 필기도구, 주일봉헌금
▶유의사항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자녀는 동반할 수 없습니다.
- 피정 진행과 관련이 없는 물품 소지를 금합니다.
- 신청 마감일 이후에 환불이 불가합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수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미사 시간 추가 및 일정 변경)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6: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6:00/ 명서동성당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기 타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8. 27.(금)~29.(주일)/ 9. 9.(목)~12.(주일)
9. 24.(금)~26.(주일)/ 10. 1.(금)~3.(주일)
■한국성지 167 완주
10. 25.(월)~10. 28.(목) 대전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시: 8월 12일~15일/ 8월 21일~23일/
9월 2일~4일/ 9월 6일~9일(추)/
9월 12일~15일(추)/ 9월 26일~29일(추)
문의: 02·773·1463, 064·756·6009

ZOOM 온라인 기도모임

일시: 8월 13일(금) 20:00,
8월 28일(토) 19:00 (선택)
주관: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수녀회
대상: 40세 이하 미혼남녀
문의: 010·4386·3103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모집

기간: 8월 23일(월)~2022년 3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석전동본당 제1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경호(베드로)
사목협의부회장(남성): 김창도(요셉)
사목협의부회장(여성): 한명희(안나)
총무: 신혜정(프란치스카)
재경분과위원장: 이미영(요안나)
구역분과위원장: 문지원(레지나)
전례분과위원장: 김영숙(프란치스카)
복음화분과위원장: 배광미(마들렌)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현숙(마리엣다)
시설분과위원장: 김정식(안드레아)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주십시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010·7123·4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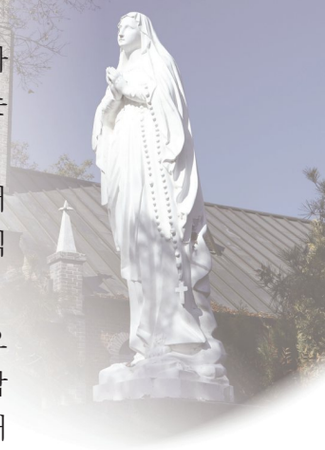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별을 바라보라Respice stella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오늘(금) 아침 5시 30분 아침기도를 바치기 직전, 갑자기 성당 바깥에서 여러 대의 풀 베는 기계 소리가 와앙~ 들리더니, 활짝 열어놓은 성당 창문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 기계 소리에 묻혀 저희들의 기도 소리는 아주 빈약한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라나는 수도원 주위의 풀들을 저희 수녀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관공서의 의뢰를 받은 용역업체의 도움을 받는데, 이분들이 여름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아침 일찍 기계 풀베기 작업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델타변이 확산과 거리두기 격상 및 또 다른 변이 속출 소식,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폭염, 폭우, 산불 소식들과 전쟁과 테러, 온갖 폭력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아픈 사연들 속에 마음이 먹먹해 있었는데, 오늘 이분들처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이들이 새벽부터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노동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하느님께서 명하신 인간 노동, 특히 육체노동의 신성함에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을 때 진정한 수도승이 된다 하신 사부 베네딕도 성인의 말씀처럼, 저희의 육체노동이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창조사업에 협력하는 고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 어머니 성모님의 성모 승천 대축일이면서,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일제 강점기에서의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의 광복절입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풀리지 않는 역사의 매듭들이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님의 전구하심 안에서 하나 둘 풀려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8월 20일은 저희 시토회 초기 사부 중 한 분이신 '꿀처럼 단 박사Doctor Mellifluus' 성 베르나르도 성인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수도승이며 교회 학자이신 성인께서는 12세기 저희 시토회뿐 아니라 유럽 사회와 교회 안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셨으며, 그분의 신학과 수도 신비신학 사상은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성모 마리아님께 대한 깊은 신심으로도 유명하십니다.

성모님께 대한 희망과 신뢰를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설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그분의 설교 중에 '별을 바라보라Respice Stella'를 소개하며 성인의 전구도 아울러 간청합니다. 온 인류가 다 함께 코로나 대유행과 기후 위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여정에 당신 아드님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힘을 주고 계시는 성모님의 전구 안에서 하느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을 만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세상의 항로 안에서 지상을 걷기보다 격류에 휘말리며 폭풍을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 한다면, 이 별빛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의 폭풍이 불 때, 고통의 암초에 부딪쳤을 때, 별을 우러르며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교만, 야심, 중상, 질투의 파도에 휩쓸릴 때 별을 우러르며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성급함, 탐욕, 혹은 육의 유혹이 마음속 작은 배를 흔들어 놓을 때 마리아께로 눈을 돌리십시오. 죄의 무게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양심의 더러움으로 힘을 잃었을 때,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슬픔의 심연, 절망의 계곡에 빠지려 할 때 마리아께 마음을 돌리십시오.
위험에 처했을 때, 곤란을 당할 때,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마리아를 생각하며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입으로는 끊임없이 마리아를 부르며 마음으로는 마리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의 전구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그 생활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마리아의 뒤를 따른다면 방황하는 일이 없으며, 마리아께 청한다면 실망하는 일이 없고 마리아께 배운다면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지켜준다면 넘어지는 일이 없고 그분이 보호해 준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해 준다면 지치는 일이 없으며 그분이 호의를 가진다면 이윽고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도, "Missus est" 제2설교.